

##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길혜지<sup>1)</sup> 황정원<sup>2)</sup>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취학 전 6세 아동) 1,099명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한 유형 분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4가지 유형, 즉 엄격한 아버지 집단(31.8%),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23.5%), 소통하는 부모집단(22.9%),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21.7%)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양육태도 유형별로 부모학력, 취업여부 및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양육관련 특성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과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 후 아동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방임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애정을 기반으로 양육하되, 필요하다면 자녀를 훈육하는 태도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특성, 아동의 문제행동, 군집분석

\* 본 논문은 제7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발표 원고(2016.11.24)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 I. 서론

취학 전 아동기는 장래 유능한 사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전 생애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최정혜, 2015), 이 시기에 상당한 비율의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보이며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안숙희(2010)는 취학 전 아동의 10~20% 정도가 심리적인 장애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취업모의 증가, 출산률 감소,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부모의 성취압력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취학 전 아동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은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학업과 사회 적응 측면에서 점차 심각해질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발현하는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장진영·김진희, 김영희, 2011; Feil, Serverson & Walker, 1998).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은 복합요인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그 어떤 요인보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부모’를 들고 있다(박혜원 2003; Lovejoy et al, 2000; Rutter, 1990). 이는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같이 보내면서 성장·발달하므로, 부모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양육 과정에서 자녀의 정의적, 인지적 행동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아동의 인지능력 뿐 아니라 성격이나 정서 등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성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정혜, 2015).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강은진·이예진·이정림, 2015; 곽소현·김순옥, 2007; 이기숙·김순환·김민정, 2010; 임호찬, 2008; Hurlock, 1987; Rohner, 1991)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생활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애정적 태도를 취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덜 나타내는 반면, 아동에 대해 과도한 기대 및 과잉 간섭을 하는 양육방식을 사용할수록 문제행동이 더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최정혜, 2015, 재인용). Aunola와 Nurmi(2005), Braza 등(2015)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애정과 행동통제를 보이는 권위적인(authoritative) 부모에게 자란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Kritzas & Grobler, 2005;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적응을 잘 하며(Hart et al., 2003),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반면(Akhter, Hanif, Tariq & Atta, 2011; Antolin, Oliver & Arranz, 2009), 혹독하

고 처벌적인 행동 통제를 하는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부모의 자녀들은 광범위하게 외현적 또는 내재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높다(Akhter et al. 2011; Rinaldi & Howe, 2012; Pereira et al., 2009)고 밝히고 있다.

한편, Braza 등(2015)은 기존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간과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가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13년 EBS 다큐프렘 '파더쇼크' 3부작이 방송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부성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김미진, 2016; 김인경, 2017; 정금자·박미라, 2013, 조부월, 2009; 최정혜, 2015; Rohner & Veneziano, 2001; Rinaldi & Howe, 201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금자와 박미라(2013)는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도덕성이 높고, 특히 아버지가 생활지도를 많이 할수록 자녀들의 도덕적, 인습적, 사회도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김인경(2017)은 3세 이후 아동의 어휘력 발달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더 크게 미친다고 하였으며, Rinaldi와 Howe(2012)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독자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아동의 외현적, 내재적, 적응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허용적(permissive)인 어머니와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며, 권위적(authoritative)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조부월, 2009; 노지형·송현주, 2012; Dwairy, 2008; 2010)도 있다. 조부월(2009)은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여부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애정-자율 일치 부모집단의 유아가 나머지 집단(애정-통제 일치, 거부-자율일치, 거부-통제일치, 불일치)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으며, 거부-통제 일치 부모집단의 유아는 불일치 집단의 유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Dwairy(2008)는 부모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장애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취학 전 아동의 발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발달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보다 큰 영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에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중요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 관련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문제 행동 발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과 취학 후 성공적인 학교적응 및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양육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특징

Rohner(1991)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 하였으며(김미진, 2016, 재인용),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를 통제하고 사회화하는 시도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Braza et al, 2015, 재인용).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 또는 태도의 양상으로 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부모의 양육특성 관련 변인들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연구되어 왔으며(Aunola & Nurmi, 2015), Cummings, Davies & Campbell(2000)과 Pereir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시사하였다(Braza et al, 2015, 재인용).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행동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왔다(Hart, Newell, & Olsen, 2003).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등 환경적 요인들과 관계 있으며(Watson & Lindgren, 1973), 자녀의 정서적(Badwin, 1949; Mussen et al.,

1969), 사회적(Coopersmith, 1967; 한종혜, 1980), 지적,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강은주·김영주, 2006,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는데, 국외 선행연구(Aunola & Nurmi, 2005; Braza et al, 2015; Dwairy, 2008; Williams & Wahler, 2010)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주로 차원적 접근에 따라 유형화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Schaefer(1965)와 Baumrind(1975)는 양육태도를 애정과 통제의 2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권위주의적인(authoritative), 허용적인(permissive),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부모로 분류하였다. Baumrind(1975)가 제안한 권위적인, 허용적인,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특징을 살펴보면,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유형으로, 필요시 엄격히 통제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반면, 권위주의적 부모는 통제나 무조건적 복종을 중시하며, 이를 어겼을 때 벌을 주고,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허용적 부모는 자기표현과 자기규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원자로 생각하여 자녀에게 벌을 주지 않으며 비교적 온정적이다(박재우, 2015, 재인용). Aunola와 Nurmi(2005)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가지 차원(애정,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통제의 차원을 더 세분화하였다.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의 요구(통제, 감독, 성숙함), 부모의 응답(애정, 허용, 관여)의 2가지 차원에 의해 양육태도를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허용적 양육태도를 허용과 방임으로 세분화한 것이 Baumrind 분류와의 차이점이다(Braza et al., 2015, 재인용). Kaufmann, Gesten, Santa, Rendina-Gobioff와 Cornell과 Frick(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인, 권위주의적인의 두 차원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Williams와 Wahler의 연구(2010)에서는 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인, 권위주의적인, 허용적인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오기선(1973)은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 불일치의 태도로 구분하였으며, 정원식(1974)은 수용-거부,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로, 정현희(1990)는 민주·자율적 태도, 기대·간섭적 태도, 온정적 태도, 불안·복종적 태도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조부월, 2009, 재인용). 최근, 최정혜(2015)는 애정과 통제의 두 차원에 의하여 권위주의적, 민주적, 허용적, 무관심적 양육태도로 유형화하였고, 김미진(2016)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Schaefer(1959)의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자율적 양육태도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박재우(2015)도 Schaefer(1959)의 양육태도를 토대로 자율-통제 차원에서 통제 경향이 강한 알파맘, 애정-거부 차원에서 애정으로 지향된 알파맘으로 양육태도 유형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 2.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전인적 발달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역기능적인 행동으로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동을 의미한다(류관열, 2014; 김은주, 2016). 이는 문제행동을 보는 관점과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부적응 행동(maladaptive behavior),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 행동장애(behavior disorder), 정서적 장애(emotional disturbance)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장진영·김진영·김영희, 2011; 김정겸·강영식, 2015). 여기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갈등의 표출 방식에 따라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와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로 구분할 수 있다. 외현화 문제는 아동이 감정이나 행동을 적절히 억제하기 못하여 표출되는 공격성, 주의력 결핍, 감정의 행동화, 반항성과 같은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반대로 내재화 문제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문제행동으로서, 위축이나 불안, 미성숙 등으로 나타난다(김정겸·강영식, 2015 재인용).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과 사물에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과잉 산만한 행동, 두려움과 초조해하는 걱정과 불안 등으로 나타난다(류관열, 2014, 재인용). 이 시기의 문제행동은 고정화되면 취학 후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낮은 학업성취, 우울, 성격장애, 또래관계 부적응, 비행으로 연결되고 성인기에 사회 부적응 및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연은모·윤해옥·최효식, 2016; 송진숙·권희경, 2003). 따라서 취학 전 시기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바른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 초기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의 정신·건강적 측면 즉, 개인내적 기질이나 요인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같은 외적 상호작용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김정겸·강영식, 2015).

##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계

다양한 부모관련 변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Aunola & Nurmi, 2005). 이는 이순자·유수옥(2012)의 연구에서 지난 2003년~2012년 10년간 국내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연구한 학술지 및 학위논문에 대한 변인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취학 전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적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ummings et al., 2000;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Rinaldi & Howe, 2012; Otto, Kolmorgen, Sierau, Weis, Klitzing & Klein, 2015; Pereira et al., 2009).

먼저, Galambos 등(2003)은 약 3년간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부모가 아동의 행동과 생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는 양육방식을 사용했을 때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과잉간섭을 하거나 애정이 없는 양육방식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문제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Kaufmann 등(2000)은 아동의 적응에 대해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의 행동에 대한 권위적인 부모의 긍정적인 영향과 이에 대비되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권위적인 부모는 아동의 부적응을 줄여주지 못하였고,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아동의 부적응을 줄이는 데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e la Torre, Garcia & Casanova(2013)는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형태와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동, 친구들에게 보이는 화와 적대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권위주의적 즉, 자녀에 대해 애정의 수준이 높지 않고, 통제는 강할 때, 공격적 행동을 더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단순히 하나의 차원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ray와 Steinberg(1999), Pettit와 Laird(2002)는 부모의 애정이 높은 심리적 통제와 함께 작용할 때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Aunola & Nurmi, 2005, 재인용). 반면, 허용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자녀는 내재화, 외현적, 그리고 주의집중에 있어서 문제를 보였다(Aunola & Nurmi, 2005; Kaufmann et al., 2000). 또한 부모 양육태도의 일치여부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조부일, 2009; Aunola & Nurmi, 2005)은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unola & Nurmi(2005)는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조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6년의 종단연구를 통해 하였다. 그 결과, 높

은 애정과 동시에 높은 심리적 통제를 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적, 외현적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와 같이 조합되었을 때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Rinaldi와 Howe(2012)의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독립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아동의 외현적, 내재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 허용적인 어머니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의미하게 아동의 외현적 행동을 예측한 반면 아버지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za 등(2015)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허용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남아의 내재적인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허용적인 아버지와 동시에 허용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여아의 신체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연은옥·윤해옥·최효식(2016)의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비독립적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긍정적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자기효과, 자기효과 상대방 효과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간 상호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험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스트레스 상태(이정숙·두정일, 2008)로서, 심리적인 안정감에 방해가 되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양육특성 중 하나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김혜금·조혜영, 2015; 최효식·연은모, 2014; 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6; Anthony et al., 2005).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부모는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Woolfson & Grant, 2006),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온화함이 부족하고 처벌적 양육태도를 보이며, 양육행동이 비일관적이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지 못한다(김영미·송하나, 2015; Ponnet et al., 2013, 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6에서 재인용). 그런데, 김정·이지현(2005)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의해 감소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어, 자녀양육에 있어 부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요컨대, 선행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특성은 취학 전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며, 양육 스트레스, 양육분담과 같은 부부의 양육특성은 양육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취학 전 6세 아동)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함께 고려한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유형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활용된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전국에서 태어난 2,150명의 신생아 패널로 시작되어, 매년 우리나라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주된 양육 책임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 기관 등을 통해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이정립 외, 2015).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한 항목을 동시에 측정하여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들을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양호도가 높은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을 표준화하여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전체 패널(2,150명)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문항을 비롯하여, 이 연구에서 관심 있는 주요 변수에 모두 성실히 응답한 1,09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아동 1,099명과 그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 각각 1,099명의 응답 자료가 함께 분석되었으며, 최종 분석 대상의 특성을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최종 분석 대상의 특성(N=1,099)

아동 특성		사례 수(%)	부모 특성		사례 수(%)
성별	여아	533 (48.5)	거주 지역	서울·경기권	450 (40.9)
	남아	566 (51.5)		그 외	649 (59.1)
첫째 여부	첫째	594 (54.0)	부 연령	34세 이하	114 (10.4)
	그 외	505 (46.0)		35-40세	606 (55.1)
외동 여부	외동	50 (4.5)		41세 이상	379 (34.5)
	형제	288 (26.2)	모 연령	34세 이하	295 (26.8)
				자매	202 (18.4)
	남매	559 (50.9)		41세 이상	165 (15.0)

## 2. 분석 변수

### 가. 부모 유형화를 위한 변수

먼저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양육태도는 크게 2개의 하위 영역인 ‘온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영역은 자기보고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분석을 위해, 온정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놀아주며 가족 규칙을 함께 결정하는 등 아이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6개 문항 평균값을 할당하였다. 반면 통제적 태도는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도록 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미리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 등 아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6개 문항 평균값을 할당하였다. 즉,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온정성과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각각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응답 값을 동시에 활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표 2> 부모 유형화를 위한 변수: 양육태도

구분		M (SD)	Cronbach $\alpha$	대표 문항 예시
온정적 태도	아버지	3.53 (0.59)	0.869	-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어머니	3.64 (0.54)	0.867	
통제적 태도	아버지	3.31 (0.56)	0.785	-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어머니	3.46 (0.50)	0.751	-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 나. 부모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한 변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한 후에는, 각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특성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3가지 변수, 즉,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수준 및 취업여부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서 각종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의미하는데, 2013년 기준 평균적으로 445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부부가 동일한 학력인지 아니면 상대방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재분류한 것이다. 분석 대상의 57.5%가 동일한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고 15.4%는 오히려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취업 상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현재 취업(휴직 포함) 상태인지에 따라 재분류한 것인데, 참고로 학업(휴학 포함) 중인 경우에는 미취업 상태로 보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 상태로 보았다. 분석 대상 중 부모가 모두 취업 상태에 있는 가구는 42.9%이며 부 또는 모 중에 한 명만 취업 중인 가구는 54.6%였다.

더 나아가 양육 분담 및 양육 스트레스 변수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로 양육 관련 특성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양육 분담’은 아이 목욕시키기, 어린이집 등원시키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밤에 일어나기 등 양육 관련 16개 문항에 대해 배우자와 역할을 똑같이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각 1점을 부여하여 16점 만점으로 변환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양육 분담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여 개발된 것인데(신나리 외, 2008),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등과 같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요인을 5점 척도로 측정된 11개 문항 평균값에 해당한다(부모 각각 Cronbach  $\alpha$  =0.872, 0.879).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양육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고, 반면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3〉 부모 유형화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한 변수① : 가정 배경 및 양육특성

구 분		변수 설명		<i>M (SD)</i>	<i>Min-Max</i>
월평균 가구소득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수령한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445.40 (191.23)	100-2,500
양 육 특 성	양육 분담	아이 목욕시키기 등 16개 문항에 대하여 부부 간 똑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정도를 16점 만점으로 변환한 값	부	3.98 (3.26)	0-16
			모	3.28 (3.02)	0-16
	양육 스트 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요인을 묻는 11개 문항 평균 값	부	2.37 (0.60)	1-4.09
			모	2.56 (0.62)	1-4.73

(표 3 계속)

구분	변수 설명		사례 수	%
부모 학력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재분류	부 = 모	632	57.5
		부 > 모	298	27.1
		부 < 모	169	15.4
부모 취업 상태	부모가 각각 취업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재분류	부모취업	472	42.9
		부취업	568	51.7
		모취업	32	2.9
		부모미취업	27	2.5

한편,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에, ‘아동의 문제 행동’은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CBBL1.5-5(Child Behavior Checklist 1.5-5) 검사를 통해 획득한 원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CBBL1.5-5는 오경자와 김영아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 행동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표준화한 검사(총 99문항)로서, 주 양육자가 아동의 문제 행동이 6개월 이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3점 척도(0점=아니다, 1점=약간 혹은 때때로, 2점=매우 혹은 종종)로 평가하게 된다. 이 검사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등 7개 하위척도와 내재화문제, 외현화 문제의 2개 요인점수와 총 문제행동척도 등 10개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를 제공하고 있다(김은설 외, 2012: 20). 구체적으로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로 구성되어 있다(이정림 외, 2015: 138).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분석한 아동의 문제행동 총점 평균은 19.79점 정도였는데, 참고로 임상/준임상 판단 기준점은 총점 44점이고 내재화와 외현화는 각 15점에 해당한다(이정림 외, 2015: 138). 아동의 문제행동은 하위영역 및 총점 수준에서 모두 왜도와 첨도가 4이하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et al, 1995).

<표 4> 부모 유형화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한 변수② : 아동의 문제행동

구분	변수 설명	M (SD)	Min-Max
아동 문제 행동	내재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요인의 합산 점수	6.65 (5.96) 0-37
	외현화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 요인의 합산 점수	5.63 (5.22) 0-30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영역의 총 합산 점수	19.79 (15.34) 0-95

### 3. 분석 방법

먼저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인지 통제적인지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의 제안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별개의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각 유형화해 왔기 때문에, 부모를 동시에 고려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비계층적 군집화(nonhierarchical clustering)인 *K-means* 방식을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군집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늘려가면서 군집별 사례 수의 분포를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해석 가능성 등을 폭 넓게 고려하여 최종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이 때, 양육태도를 표준 *Z*점수(평균 0, 표준편차 1)로 변환시킨 후 분석하여 변수들 간 유사성 거리를 측정하는 데 동등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특성보다는, 군집 내에서 매우 높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는 특성에 주목하여 군집 명칭을 설정함으로써 군집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이나와 손원숙(2012)의 제안을 적극 활용하였다. 즉, 평균 0을 기준으로  $\pm 0.75SD$ 까지는 높거나 낮은 수준, 그 밖의 범위는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군집 명칭을 부여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형을 확인한 후에는, 이러한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때 관심 변수의 속성을 고려하여, 가정 배경 및 양육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chi^2$ 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 MANOVA)을 실시하였다.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간 상관인  $0.720(p < 0.001)$ 로 유의하게 나타나, F검증을 반복 실시함에 따른 1종 오류를 줄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 크기( $\eta^2$ ) 및 사후 검증(*Scheffé*) 결과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한 부모 유형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4가지 양육태도를 동시에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5>, [그림 1]과 같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탐색되었는데, 전체 1,099명 중에서 군집1에는 350명(31.8%), 군집2에는 239명(21.7%), 군집3에는 258명(23.5%), 군집4에는 252명(22.9%)이 각각 포함되어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군집1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아버지가 자녀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태도를 매우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부모 모두 자녀에게 어느 정도는 애정을 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등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규칙 준수 등을 강조하는 역할을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집1은 ‘엄격한 아버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는 자녀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매우 소극적이고 자녀를 통제하는 의지 수준도 보통에 불과한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어,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군집3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인 측면과 통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매우 낮은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 해당된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 어린 관심이나 친밀감을 보이거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태도에 있어 모두 매우 소극적인 집단으로 나타나, 군집3은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4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에게 애정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를 매우 강하게 형성하고 있으며, 반면 아버지가 자녀 행동을 통제하려는 태도 역시 매우 낮은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부모 모두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녀와 함께 규칙을 만들어가며 소통하는 것을 즐기고, 반대로 부모의 말에 일방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거나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는 태도는 매우 낮다는 점에서 군집4는 ‘소통하는 부모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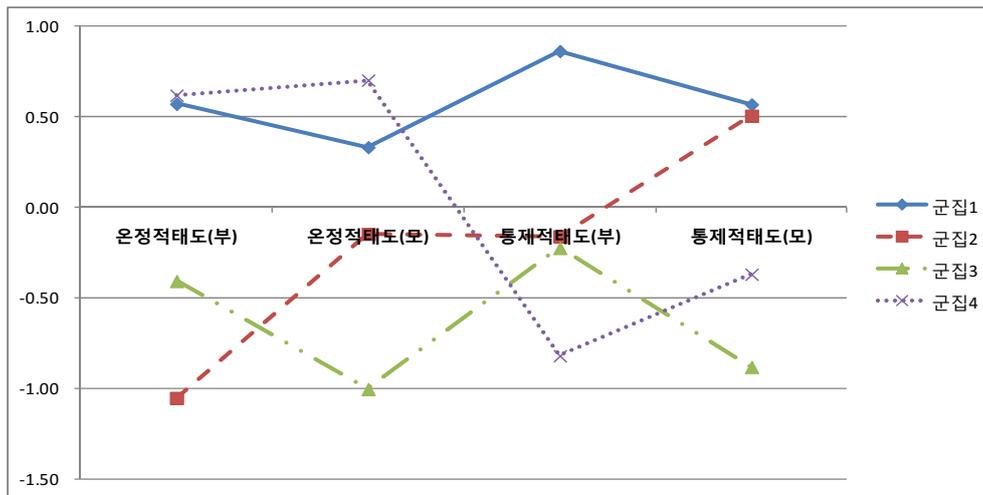
참고로 4가지 부모 유형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형에 따른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구체적으로 부모 모두 온정적 태도에 있어서는 ‘소통하는 부모 집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엄격한 아버지 집단’이 높았다. 또한 통제적 태도는 부모 모두 ‘엄격한 아버지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양육 태도를 고려한 유형화 결과

구분		군집1 (엄격한 아버지 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 집단)	F검증 (Scheffé)
온정적 태도	부	0.57 (높음)	-1.05 (매우 낮음)	-0.41 (다소 낮음)	0.62 (높음)	233.606*** (4>1>3>2)
	모	0.33 (다소 높음)	-0.15 (평균 수준)	-1.00 (매우 낮음)	0.70 (높음)	327.232*** (4>1>2>3)
통제적 태도	부	0.86 (매우 높음)	-0.16 (평균 수준)	-0.22 (평균 수준)	-0.82 (매우 낮음)	252.874*** (1>2>3>4)
	모	0.57 (높음)	0.51 (높음)	-0.88 (매우 낮음)	-0.37 (다소 낮음)	217.255*** (1>2>4>3)
사례 수		350 (31.8%)	239 (21.7%)	258 (23.5%)	252 (22.9%)	

주1) 최종군집의 표준화된 Z점수(M=0, SD=±1)를 제시함.

\*\*\*p < .001



주: 군집1: 엄격한 아버지 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 집단

[그림 1] 부모의 양육 태도를 고려한 유형화 결과

이와 같은 4가지 유형별 부모의 최종학력 및 취업상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표 6〉 참조). 특히, ‘엄격한 아버지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어머니의 학력보다 높은 가정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

해 다소 높았고,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은 오히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아버지보다 높은 가정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반면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이나 ‘소통하는 부모 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의 최종학력이 동일한 가정의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가 모두 취업 상태인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아버지만 취업 중인 가정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참고로 통계청의 「2014년도 생활시간 보고」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하루 평균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시간은 남편은 13분, 아내는 35분이었고, 외벌이(남편) 가정의 경우에는 남편은 19분이었지만 아내는 1시간 4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다시 말해서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남편이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시간 자체는 큰 변화가 없고, 아내의 양육 부담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별 부모의 학력 및 취업상태 분석 결과

구분		군집 n (%)				전체	χ <sup>2</sup>
		군집1 (엄격한 아버지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집단)		
부모 최종 학력	부=모	192 54.9%	131 54.8%	158 61.2%	151 59.9%	632 57.5%	17.941** (df=6, p=0.006)
	부>모	116 33.1%	57 23.8%	66 25.6%	59 23.4%	298 27.1%	
	부<모	42 12.0%	51 21.3%	34 13.2%	42 16.7%	169 15.4%	
부모 취업 상태	부모취업	151 43.1%	89 37.2%	119 46.1%	113 44.8%	472 42.9%	19.470' (df=9, p=0.021)
	부취업	188 53.7%	137 57.3%	117 45.3%	126 50.0%	568 51.7%	
	모취업	9 2.6%	4 1.7%	12 4.7%	7 2.8%	32 2.9%	
	부모 미취업	2 0.6%	9 3.8%	10 3.9%	6 2.4%	27 2.5%	
전체		350 100.0%	239 100.0%	258 100.0%	252 100.0%	1,099 100.0%	

'p < .05, \*\* p < .01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양육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모 유형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표 7> 참조).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소통하는 부모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부모 모두 ‘소극적인 아버지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소통하는 부모 집단’에서 부부 간 양육분담이 가장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아버지집단’에서, 어머니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아버지집단’과 ‘무관심한 어머니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모두 ‘소통하는 부모집단’에서 가장 적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표 7>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별 가구소득 및 양육 관련 특성 분석 결과

단위: 만원, 점

구분	군집1 (엄격한 아버지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집단)		F검증 (Scheffé')	$\eta^2$		
	M	SD	M	SD	M	SD	M	SD				
월평균 가구소득	442.60	171.17	424.35	176.55	423.72	165.61	491.43	241.95	7.078*** (4>1,2,3)	0.02		
양 육 관 련 특 성	양육 분담	부	4.41	3.41	2.76	2.94	3.68	3.09	4.86	3.14	27.176*** (4>1,3>2)	0.06
		모	3.51	3.08	2.40	2.46	3.18	3.06	3.91	3.20	11.522*** (1,3,4>2)	0.03
	양육 스트 레스	부	2.26	0.58	2.72	0.51	2.53	0.57	2.02	0.49	79.309*** (2>3>1>4)	0.18
		모	2.48	0.59	2.71	0.63	2.85	0.52	2.22	0.55	59.977*** (3,2>1>4)	0.14

\*\*\* $p < .001$

## 2. 부모 유형에 따른 아동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더 나아가, 4가지 부모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Pillai의 criterion 값이 6.909( $p < 0.001$ ) 그리고 Wilks의  $\lambda$  값이 7.014( $p < 0.001$ )로 나타나 부모 유형별로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문제행동의 총점을 기준으로 할 때 ‘무관심한 어머니집단’과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엄격한 아버지 집단’과 ‘소통하는 부모 집단’

에서 양육되는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문제행동의 발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하며 통제하려는 태도를 지닐 때보다 오히려 자녀의 행동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문제 행동 발현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 및 기타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무관심하거나 아버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집단에서 나머지 두 집단보다 더 유의하게 높았다.

〈표 8〉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결과  
단위: 점

	부모 유형				df	SS	MS	F검증 (Scheffé)	η <sup>2</sup>
	군집1 (엄격한 아버지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집단)					
내재화 문제	6.12 (5.58)	7.18 (6.04)	8.14 (6.45)	5.36 (5.52)	3	1159. 07	386. 36	11.164*** (3,2>1,4)	0.03
외현화 문제	4.84 (4.71)	6.11 (5.20)	7.45 (5.93)	4.40 (4.55)	3	1505. 15	501. 72	19.317*** (3>2>1,4)	0.05
총점	17.93 (14.35)	21.53 (14.75)	24.52 (17.12)	15.89 (13.79)	3	11556 .45	3852. 15	17.092*** (3,2>1,4)	0.45

\*\*\*p < .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4년에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취학 전 6세 아동)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함께 고려한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 유형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한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를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통제하는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맡고 있는 집단(엄격한 아버지 집단, 31.8%), 어머니가 어느 정도 자녀를 통제하고 관리하지만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매우 소극적인 집단(소극적 아버지 집단, 21.7%),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인 측면과 통제적 측면에서 모두 매우 낮은 태도를 보이는 집단(무관심 어머니 집단, 23.5%),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애정을 보이면서도 통제 수준은 비교적 낮은 집단(소통하는 부모집단, 22.9%)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태도에 있어 애정과 통제의 두 축을 기준으로 부모 유형을 분류한 Baumrind(1967)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엄격한 아버지 집단은 부모가 어느 정도는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되 아버지의 통제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Baumrind(1967)의 권위 있는 부모와 비교 가능하며,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은 방임형 또는 무관심 집단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를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Baumrind(1967)연구를 포함한 기존 연구들(김미진, 2016; 박혜원, 2003)과 차별성을 지닌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별개로 접근하여 아버지의 유형화와 어머니의 유형화에 독립적으로 활용한 선행연구를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동등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 특징을 부모 학력이나 경제적 소득과 같은 배경 뿐 아니라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양육특성 측면에서도 비교하였다. 특히, 양육특성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 간 양육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도 소통하는 부모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는 소극적 아버지 집단에서, 어머니는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극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집단에서 오히려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결과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 아빠들에게 영유아 자녀들과 함께 놀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아이조아 아빠교실’을 19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 것(이테일리, 2017년 3월 27일자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교육받음으로써 소극적인 양육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개선하

고 가정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반응성, 불안 및 우울, 신체증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모두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 소극적 아버지 집단, 엄격한 아버지 집단, 소통하는 부모 집단에서 양육된 자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제행동 전체 총점으로 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순서로 문제 행동 발현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무관심한 방임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송진숙(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형이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예측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취학 전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지영과 김미애(2010)의 연구에서 부모의 거부양육이 취학 전 아동의 공격성(언어공격, 공격성, 대물공격)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는 분석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반면, 부모 모두 애정을 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통제성을 발휘하면서 훈육하는 경우는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Baumrind(1967)의 권위 있는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행동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박재우(2015)의 연구에서 부모가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베타담의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자존감을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와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수준을 탐색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취학 전 아동이 또래 간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내면적 또는 외현적 문제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모는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되, 무조건적인 애정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취학 전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부모가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로 한 것(관계부처 합동 2016.3.29일자 보도자료)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통해 부모 유형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즉, 본 연구에서 취학 전 아동 자료를 통

해 구분한 4가지 부모 양육태도 유형에도 함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자녀의 문제행동 발현수준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진·이예진·이정림(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분석 연구, 연구보고 2015-34, 육아정책연구소.
- 강은주·김영주(2006).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차이,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0(4), 113-133.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진(2016).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유형 차이 분석: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239-262.
- 김영미·송하나(2015). 영아기 자러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9(2), 71-88.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연구보고 2012-33.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주(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육아지원연구, 11(1), 5-28.
- 김인경(2017). 유아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과 부모교육 개선방안. KDI FOCUS 제 79호. 한국개발원.
-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김정겸·강영식(2015).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 관련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연구 추이 및 유형에 대한 종단적 탐색 연구: 1970-2015년까지의 연대별 문제행동 범주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0), 6722-6742.
- 김혜금·조혜영(2015).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자아 인식 및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1-14.
- 곽소현·김순옥(2007).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 모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관계부처 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6.3.29.일자.

- 노지형·송현주(2012).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아동의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1), 1-15.
- 류관열(2014).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3), 289-298.
- 박재우(2015). 알파맘-베타맘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녀 자존감의 매개 효과 분석. 교육치료연구, 3, 431-445.
- 박혜원(2003). 유아기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생활과학논문집, 4(2), 85-95, 울산대학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통계로 본 사회보장 2016.
- 송진숙(2003).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영유아보육학, 35, 143-161.
- 송진숙·권희경(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25.
- 신나리·안재진·이정림·송신영·김영원. 한국아동패널 2008. 연구보고 2008-08.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이나·손원숙(2012).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 분석: 개인-중심적 접근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65-83.
- 안숙희(2010).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연은모·윤해옥·최효식(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 이기숙·김순환·김민정(2010). 유아의 성, 연령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머니 양육유형과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0(4), 187-212.
- 이순자·유수옥(2012).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관련 변인 분석: 국내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총론, 16(6), 127-156.
-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연구보고 2015-3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숙·두정일(2008).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2), 1-17.
- 임호찬(2008). 유아의 사고능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영재교육연구, 18(3), 613-634.

- 장진영·김진희·김영희(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정금자·박미란(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0, 43-64
- 조부월(2009).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일치유형 및 일치여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비교.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93-119.
- 최정혜(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9(5), 55-71.
- 최지영·김미애(2010). 유아기질과 부모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19-137.
- 최효식·연은모(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최효식·윤해욱·연은모(2016).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회존모형(APIM)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20(20), 495-517.
- Akhter, N., Hanif, R., Tariq, N. & Atta, M. (2011). Parenting styles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mong children. *Pakistan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26(1), 18-35.
- Antolin, L., Oliva, A., & Arranz, E. B. (2009). Contexto familiar y conducta antisocial infantil. *Anuario de Psicología*, 40(3), 313-327.
- Anthony, L.G., Anthony, B.J., Glanville, D.N., Naiman, D.Q., Waanders, C., & Shaffer, S.(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umrind, D. (1967). Child cu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pt2), 1-103.
-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J. Brooks-Gunn, R. lerner, & A. C. Peterson(Eds), *The encyclopaedia of adolescence*(pp. 746-758), New York, NY: Garland.
- Braza, P., Carreras, R., Manual, J. M., Braza, F., Azurmendi, A., Pascal, E., Cardas,

- J., & Sanchez, J. R.,(2013). Negative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Moderating Effects of the Child's Sex.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 847-856.
- Cornell, A. H., & Frick, P. J. (2007).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Parent-Reported Guilt and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3), 305-318.
- Cummings, E. M., Davies, P.T., & Campbell, S. (2000).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family processes*. New York: Guilford Press.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 44-58.
- De la Torre, M. J., Garcia, M. C., & Casanova, P. F. (2013).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Aggressiveness in Adolescents. *Electronic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al Psychology*, 12(1), 147-170.
- Dwairy, M. (2008). Parental inconsistency versus parental authoritarianism: Association with symptoms of psychological disord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616-626, doi: 10.1007/s10964-007-9169-3.
- \_\_\_\_\_. (2010). Parental Inconsistency: A Third Cross-Cultural Research on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9, 23-29.
- Feli, E. G., Serverson, H. H., & Walker, H. M. (1998). Screening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elay: The early screening project.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1(3), 252-256.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74-587.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t, C. H., Newell, L. D., & Olsen, S. F. (2003). Parenting skills an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In J. O. Greene & B. R. Burleson(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pp.

753-797).

- Hurlock. E. B.(1987). *Transition in Family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McGrawHill Kogakusha, Ltd.
- Kaufmann, D., Gesten, E., Santa Lucia, R.C., Salcedo, O., Rendina-Gobioff, G., and Gadd. R.(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parents'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2), 231-245.
- Kritzas, N., & Grobler, A. A.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7*(1), 1-12.
- Lamborn, S.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Otto, Y., Kolmorgen, K., Sierau, S., Weis, S., Klitzing, K., & Klein, A. M. (2016).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and Fathers of Preschool Age Children with Internalizing Disorders. *Child and Family Studies*, *25*, 381-395, DOI 10.1007/s10826-015-0242-3
- Pettit, G. S., & Laird, R. D. (2002).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and earlier child adjustment.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s' and adolescents*(pp. 97-12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reira, A. I., Canavarro, C., Cardoso, M. F., & Mendonca, D. (2009). Patterns of parental rearing styles and child behaviour problems among Portuguese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4), 454-464.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aits, K., & Pasteels, I.(2013). Parenting stress and marti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Rinaldi, C. M., & Howe, N.(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 Rohner, R. P.(1991).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NY: Sage Publications.
- Rohner, R. P. & Veneziano, R. A.(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 Rutter, M.(1990). Commentary: Some focus and process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effects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0-67.
- Weiss, L. H., & Schwarz, J. C.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s and older adolescents' personality,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and substance use. *Child Development*, 67, 2101-2114.
- Williams, K. L., & Wahler, R. G.(2010). Are Mindful Parents More Authoritative and Less Authoritarian? An Analysis of Clinic-Referred Mother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9, 230-23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이테일리(2017.3.27.일자 기사). 서울시, 아빠교실 올해 19개 자치구로 확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384166615867584&DCD=A00703&OutLnkChk=Y> 에서 2017년 3월 28일자 검색.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황정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이메일 jwh@kcue.or.kr

## Abstract

### **Analysis on the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according to the Types of Parenting Attitude of Their Parents**

Hyeji Kil and Jeongwon Hwang

Since the need for the gender equality grows as the number of women who work increases, this study conducted group classification that considers the parenting attitude of both father and mother using data of 1,099 six-year-old preschool children in the 7th year Panel Study on Korea Children(PSKC).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nd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the levels of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ir parents' attitud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of cluster analysis that explored the types of parenting attitudes indicated the following four main categories: strict father group (31.8%), neglecting mother group (23.5%), communicating parents group (22.9%), and passive father group (21.7%). The father and mother in Group 1 (strict father group) both formed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ldren while father played the role to discipline the children. In Group 2 (passive father group), father took a very passive stance in form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ldren while mother controlled and managed children to a certain level. In Group 3 (neglecting mother group), mother showed a very low attitude toward children both in terms of compassion and controlling. Group 4 (communicating parents group) showed relatively low level of controlling while both mother and father showed affection toward children.

Second, parenting attitude types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not only i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such as parents' education level, working status, and income level, but also in parenting related characteristics such as sharing child care and parenting stress.

Finally, childrens' manifestation of problematic differed with the types of parenting attitudes: level of problematic behavior was higher among the children raised in the neglecting mother group and passive father group, compared to other two groups. These results imply that parents should rear their children with affection, and discipline them when necessary, rather than neglecting their problems during their preschool years in order for the children to adapt well in later school life.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 programs for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for both father and mother with pre-school children are expected to help the parents pay more attention to their children and guide their children in desirable directions.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cluster analysis